

서로에게 소식을 전합시다

동정

◆ 이근표 회원 (한국공항공사 사장, 前 서울 청장)



이 회원은 최근 뉴질랜드 오플랜드에서 열린 제 15차 ACI(국제공항협회) 세계 및 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하여 3년 임기의 ACI 태평양 지역 이사회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 이용훈 회원 (前 경기 안산서장)



이 회원은 지난 11월 경우회에서 운영하는 골프모임인 무궁화회 B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이용훈 회장의 선출은 당시 회장이었던 박주호 회원의 추천이 있었지만 다른 입후보자가 없었고, 다수의 회원들이 그를 회장으로 선출할 뜻을 밝힌 가운데 박주호로서 선출을 확정지었다. 신임 이 회장은 「모임의 활성화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금익모 회원 (前 서울서초서장)



금 회원은 최근 국제로터리 3640지구 총재 특별대표직을 맡았다. 금 회원은 지난 95년 2월 로터리클럽에 가입한 후 남다른 봉사를 실천해온 지난 2004년과 2005년 까지 2년간 서울 서초로터리 클럽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데, 그는 『지역사회 및 직장, 세계를 통한 봉사자로서 선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고, 교육사업과 인도적인 봉사를 제공하며, 모든 직업에 있어 높은 도덕적 수준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생클럽과 회원증강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박석도 회원 (前 경무관)

박 회원은 최근 인천시 견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52개 단지) 창립총



회에서 조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박 회원은 『임주지들의 권리 을 옹호하는 한편 견단 신도시 개발사업에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재운 회원 (전북 고창경우회)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회원이 최근 제 3집 「수술 전 마음」이란 시집을 발간했다. 안 회원이 이번 시집을 발간하면서 독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만수무강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시집 제목을 「수술 전 마음」으로 정했다. 이 시집에는 경우회원 나들이를 비롯한 150편의 그의 시상을 담은 작품들이 실려 있다.

◆ 정광남 회원 (前 여경회 사무국장)



정 회원은 최근 중국 대련대학에서 「파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 3월부터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온 정 회원은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파사는 몸전체에 퍼져 있는 경혈을 자극해서 몸 속의 병을 피부 표면으로 끌어내어 나쁜 기를 제거해 병을 고치는 요법으로 제 3의 醫學으로 불리워지며 대체의 학으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 임재민 경사 (서울청 지하철경찰대)



임 경사는 최근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수배중인 피의자를 검거한 공로로 경사로 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임 경사는 금년 7월 경찰으로 승진한지 불과 4개월 만에 또 경사로 「초고속 승진」하게 되어 주위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초대詩



이문재
(시인, 경우회 문예회 운영위원)

푸른 소나무

설한 풍 속에서도
고고히 서 있는
푸른 소나무
산에서 들에서
푸른 깃발 휘날리며
승승장구 한다.
만고 풍상 속에서도
독아청청

뿜어내는 향기
기개와 인내로 당당하게
건승을 자랑하여
인고의 새월 속에서
백절 불굴의 기개로
느름한 낙락장송
온 누리 푸르게

인사발령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안전사업본부장 김옥전 (前 부산청장)
- 교통방송 광주본부장 문경호 (前 전남청장)
- 교통방송 대전본부장 한현택 (前 제주청장)
- 교통방송 전주본부장 배성수 (前 전북청장)

모임안내

충북 경우회



최근 이재덕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 40여명이 1박 2일로 포항 소재 포스코를 산업시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문단지와 토암산 석굴암과 불국사 등을 관람하며 회원간의 유대를 도모하며 단합을 다짐했다.

제주도 경우회



최근 김영중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자문위원 및 제주경우회 임원과 회원 7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시 봉개동 절루 휴양림 일대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관광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여경 경우회

최근 도로교통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이주자 회장을 비롯한 전국 여성경우회원 다수가

이두선 前 횡성署長 中央會 지도위원으로 위촉



재향경우회가 최근 바둑 아마 5단인 이 두선 회원(前 강원 횡성경찰서장)을 기우회 결성을 위한 경우회 지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구홍일 경우회장은 이 회원에

게 『종암회 차원의 바둑모임 결성 및 활성화, 그리고 바둑을 통한 회원상호간의 친목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고, 이 회원은 『미력이나마 모임을 결성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경우회는 이번 기우회 결성과 관련 경우사랑방을 기우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모임장소로 제공하는 한편 모임이 토대를 구축하면 전국 바둑 동호인들끼리의 모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주소변경

◆ 김문자 회원 (여경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 솔레시티 108동 1002호
☎ 031-264-5212

결혼

◆ 이무영 회원 (前 경찰청장)의 장남 호준 군이 지난 12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 서울 도심공항 티미널에서

(☎ 031-702-3255, 011-9131-5555)

◆ 오장근 총경 (경북 예천서장)의 장남 정민 군이 지난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12시 30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 박혜선 양 (함전경찰회 근무)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10시 40분 경북 문경시 가야웨 당호 2층에서

부음

◆ 양덕환 회원 (前 고양서장)의 부인 李相淳 (세실리아) 여사가 지난 11월 18일 금요일 저녁으로 별세. 향년 78세

(☎ 010-9925-5258)

외友會

외友會(회장 정원보)은 오는 12월 8일 목요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회현동 1号 소재 토방이란 음식점에서 송년 모임을 갖는다.
(연락처:총무 조부호 ☎ 011-389-8860)

김원주 前 경무관의 차남

김양균 교수, DNA 「52년 미스터리」풀어

최근 DNA 「52년 미스터리」를 풀어 언론에 화제가 되었던 김양균 교수 (중앙대 의대)가 김원주 회원(前 경무관)의 차남인 것

으로 알려졌다. 김양균 교수는 동료인 김경규 교수와 팀을 이뤄 1953년 미국의 제임스 웨인 박사와 영국의 프랜시스 크리 박사가 DNA의 이중나선 모형을 발견한 이후 52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DNA의 새로운 3차원 구조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내 세계적 과학전문지인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던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질병과 관련된 DNA의 형성을 막을 수 있어 암이나 천연두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질병과

관련된 DNA의 형성을 막을 수 있어 암이나

천연두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주 회원은 『아들의 이번

연구성과가 생명현상의 근본원리를

설명하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식을

공부시킨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김 교수의 놀라운 연구실

적에 대해 김원